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유학생 비자 취소 뉴잉글랜드 지역서 최소 80건, 한인학생 2명도 포함

유학생들 모두가 불안해하며 SNS 기피 또는 삭제, 한국방문은 그대로 진행  
미 전국적으로 약 5천건 취소, 한인 유학생 취소자들 문의 전화 잇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유림,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취소가 최근 몇주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최소 80건 이상 발생했으며, 한인 학생들의 비자 취소도 최소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껏 한인 학생들은 취소사례가 없는 것을 위안 삼아 안도 해하던 학생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스톤글로벌은 실제 학생 비자 취소 숫자는 80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5,000건에 달하는 비자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보도했다.

보스톤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에 따르면 보스톤대학(BU)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생들 중 최소 2명 취소당했으며 매사추세츠 밖에서도 학생비자 취소에 따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 유학생이나 '국가 안보 우려' 를 제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방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의 경우 정치적 사유와 무관하게 비자가 취소됐으며, 한인 학생들의 경우도 각하된 경범죄였거나 실수에 의한 비자 취소였다.

가장 많은 국제 유학생을 보유한 노스이스턴 대학과 보스톤대학(BU)은 ▶▶8면으로 계속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학생비자 취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존하버드 동상에는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유학생 위협조치가 취해진다면 저발길이 끊어질 수도 있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틱스아래 건설업으로 성공적 투자 건설팀

\* 주지에 아플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평통, 전문가 초청 2025 한미 평화통일 포럼 개최

## 차세대들의 한미 교류 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문수)는 2025 한미 평화통일 포럼 행사를 지난 4월 9일 포크만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이석원 부회장과 함께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상원 하버드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아름다운 오디토리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알렸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멀리 한국에서 오신 박원곤 교수(이화여대), 황지환 교수(서울시립대), 임은정 교수(국립공주대)와 보스톤에서 함께한 짐 월시(Jim Walsh, MIT),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브랜다이스대), 윌리엄 그라임스(William Grimes, 보스톤대) 교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이어 “김재휘 보스톤 총영사와 서울에서 참석한 송순철 국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의 지원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며, “이번 포럼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발전된 차세대 포럼으로 키워 나가자” 고 강조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축사에서 “제2기 해외 지역협의회 중 세대 간 협업

의 대표 주자인 보스톤협의회와 평통 사무처가 협력하여 포럼을 개최하게 된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차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한미 간 교류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 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세션 1은 짐 월시 MIT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원곤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한미 동맹의 주요 쟁점과 과제, 주한미군 조정 문제 및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다루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리 세이모어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유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유산,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트럼프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중러 동맹을 분열시키고 러시아를 중국 견제를 위한 균형 세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황지환 교수는 트럼프의 향후 대북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그라임스 교수는 향후 한미

### 〈전체 기사 읽기〉

관계의 핵심은 상호 호혜성에 있다고 밝혔다.

세션 2는 박원곤 교수의 사회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작에 앞서 브랜다이스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강남스타일’ 비디오가 상영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임은정 교수는 차세대 중심의 한미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형태의 청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준기 위원은 현지 차세대들의 관심사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생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MCPHS의 약대생 김상언 학생은 정치적·문화적 협력뿐만 아니라 의료 및 제약 산업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랜다이스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전공 중인 배성민 군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한미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 하며, 이처럼 의미 있는 포럼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청년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UMass-Boston(UMB)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하중수 한인학생회(KOSA) 회장은 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 기술 경진대회,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VR) 기반 교류를 제안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차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라셀대 재정경제학 전공 조나단 새미 군은 “평통이 이런 중요한 포럼을 개최해주고 감사” 며 “앞으로 더 많은 행사와 교류를 통해 차세대 리더에게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면 한미 동맹은 더욱 강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UMB의 진원정 학생은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럼이었다. 다음 포럼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 고 말했다. 연세대 동문 회장 백현일 박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


석해주었고,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점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 장수인 보스톤협의회 고문은 “행사가 매우 좋았다. 학문적이면서도 현실의 미래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여도 활발했고 질문도 흥미로웠으며, 이런 포럼이 보스톤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고 평가했다.

보스톤협의회는 앞으로도 차세대와 연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6월 8일 열릴 골든벨 행사와 6월 23일 우번시 참전용사 묘역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는 감사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각 대학 학생회에서는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와의 협력 및 활동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moon.econ@gmail.com 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 Dedicated to Your Health

##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p><b>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b> 전화 617.957.8133</p> <p>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b>전화 781.861.8978</b></p> <p>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b>전화 978.369.0254</b></p> <p>이메일: <a href="mailto:info@icondentalexington.com">info@icondentalexington.com</a> <a href="http://www.icondentalexington.com">www.icondentalexington.com</a></p>	<p>Dr. 차영주 치과 일반의</p> <p>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p> <p>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p>
--	--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 Pin total sales 2023

# 전혜림 교수, 보스턴 스컬러스 재즈 클럽에서 연주회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계 미국인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버클리 음대 최초의 한인 교수인 전혜림씨가 오는 4월 26일 토요일 보스턴 최고의 재즈 클럽인 스컬러스(Scullers Jazz Club)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전혜림 교수는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베니 골슨(Benny Golson)으로부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받은 아티스트로, 최근 발표한 정규 재즈앨범 Groovitude가 미국 전역의 재즈 라디오 차트에서 14위에 오르며 음악 평론가와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보스턴과 뉴욕에서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전석을 매진을 기록했으며,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소개되어 재즈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Groovitude 앨범의 곡들과 이전 앨범에서 인기있었던 자작곡 및 편곡 작품들도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흥난과 작곡의 "고향의 봄"과 김종환 작곡의 "백년의 약속"도 수록된 이번 앨범은 암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께 헌정하는 작품으로, 음악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을 더한다.

이날 공연에는 그래미 및 라틴 그



**〈전체 기사 읽기〉**  
래미 수상자인 드러머 마크 워커(Mark Walker),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베이시스트 존 록우드(John Lockwood)도 특별 게스트로 함께 무대에 올라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두차례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스컬러스 공연 이후 많은 기대를 모으는 복귀 무대이다.

**공연일정**  
• 일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Scullers Jazz Club (400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4)  
• 티켓 : <https://www.ticketweb.com/event/hey-rim-jeon-scullers-jazz-club-tickets/13702234?pl=scullers>  
bostonkorean@hotmail.com

## 유매스보스턴 한인학생회(KOSA), 한문수 교수 초청 강연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보스톤 캠퍼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이하 유매스보스턴) 한인학생회(KOSA, 회장 하중수)는 지난 4월 4일(금), 한문수 교수를 초청해 ‘남북한의 경제 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니버시티홀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강연에 몰입하며 적극적인 질의응답과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비교, 협력 가능성,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와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이끌어갔다. 특히 독일 통일 사례와의 비교, 퀴즈 형식의 남북한 언어 비교, 북한 체류 경험 등을 함께 소개하며 강연의 흥미를 더했다.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강의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영학과 오현수 군은 “남북

**〈전체 기사 읽기〉**  
한 경제의 역사와 미국 경제의 역사를 비교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특히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통해, 75년의 분단 동안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학생인 스티븐스(컴퓨터공학 전공)는 “남북한의 경제 관계를 배우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 교수님은 재미있고 강의도 매우 몰입감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컴퓨터공학과 이지윤 씨는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도 강의 내용이 어렵지 않게 다가왔다. 교수님께서 남북한의 경제를 너무 깊이 않으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흥미롭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강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문의: umb.kosa@gmail.com  
웹사이트: www.umbkosa.org  
인스타그램: @umb\_kosa  
bostonkorean@hotmail.com

#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 H MART

MA WEEKLY SALE APRIL 18th - APRIL 24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DASHIMAKI TAMAGO

Moist, juicy, and served warm, it's a comforting dish that warms both your body and soul. 부드럽고 촉촉한 한입,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다시마키 계란말이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b>Seafood Mushroom</b> 해산물 버섯 5.29 OZ/PKG <b>\$0.99</b>	<b>Yellow Corn</b> 노란 옥수수 EA 4 FOR <b>\$1.99</b>	<b>Shanghai Tip</b> 청경채 팁 LB <b>\$1.79</b>	<b>Medley Tomato</b> 매들리 토마토 1.5 LB/PKG <b>\$2.99</b>	<b>Small Mustard Green</b> 작은 머스타드 그린 LB <b>\$1.29</b>	<b>Navel Orange</b> 네이블 오렌지 EA <b>\$0.99</b>	<b>Shine Muscat Grape</b> 샤인 머스캣 포도 1.32 LB/PKG <b>\$12.99</b>
<b>Hallabong Mandarin</b> 한라봉 3 LB/BOX <b>\$9.99</b>	<b>Gray Squash</b> 그레이 호박 LB <b>\$0.99</b>	<b>Frozen Durian</b> 냉동 두리안 LB <b>\$3.99</b>	<b>Chinese Radish</b> 중국 무 LB <b>\$0.69</b>	<b>Potato</b> 감자 LB <b>\$0.49</b>	<b>Red Leaf Lettuce</b> 적상추 BUN <b>\$0.99</b>	<b>Orri Mandarin</b> 오리 만다린 8 LB/BOX <b>\$17.9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Heel Meat</b> 생 소 사태 LB <b>\$8.99</b>	<b>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b>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LB <b>\$13.99</b>
<b>Fresh Pork CT Butt</b>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6.99</b>	<b>Pork Jowl Meat</b> 돼지 항정살 LB <b>\$7.99</b>
<b>Fresh Whole Chicken</b> 생 통닭 LB <b>\$1.99</b>	<b>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b> 양념 돼지 별집 목살 스테이크 LB <b>\$6.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Live Blue Crab</b> 활꽃게 LB <b>\$4.99</b>	<b>Fresh Salmon Steak</b>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b>Frozen Chilean Seabass Steak</b>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b>\$19.99</b>	<b>Headless White Shrimp</b> 흰새우 16-20'S/LB <b>\$5.99</b>
<b>Frozen Small Octopus</b> 주꾸미 LB <b>\$3.99</b>	<b>Frozen Milkfish</b> 밀크피쉬 800 UP/LB <b>\$2.99</b>

### SMART CARD MEMBER ONLY

<b>NONGSHIM Potato Noodles</b> 농심 감자면 3.52 OZ X 4 EA/PKG <b>\$5.99</b>	<b>NONGSHIM Champong Ramyun</b> 농심 오징어짬뽕 4.37 OZ X 4 EA/PKG <b>\$5.99</b>
<b>GS YOU US Omori Kimchi Stew Ramyun</b> GS YOU US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5.64 OZ X 4 EA/PKG <b>\$5.99</b>	<b>GS YOU US Gonghwachun Instant Noodles with Black Bean Sauce</b> GS YOU US 공화춘 6.87 OZ X 4 EA/PKG <b>\$5.99</b>

<b>RAW NATURE Sweet Rice</b> 자연담은 찰쌀 15 LB <b>\$12.99</b>	<b>PULMUONE Jjajang Ramen</b>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 1.28 LB (5 EA/PKG) <b>\$4.99</b>	<b>NONGSHIM Hot &amp; Spicy/Spicy Kimchi Flavor Bowl Noodles</b> 농심 육개장/김치 사발면 3.03 OZ X 12 EA/PKG <b>\$14.99</b>	<b>HAIO Korean BBQ Sauce</b> 해오름 바베큐 소스 BEEF SHORT RIB / BEEF BULGOGI 1.85 LB <b>\$3.99</b>	<b>CHUNG JUNGONE Pork Loin Cutlet</b> 청정원 참작 수제 등심 돈까스 12 OZ <b>\$6.99</b>
<b>SAJO DAERIMSEON Fried Soybean Curd</b> 사조 대림선 주부 초밥짬 1.05 LB <b>\$5.99</b>	<b>YOOCHUN Korean Cold Noodles</b> 유천 냉면 MUL (ICY BROTH-2.48 LB) / BIBIM (SPICY-2 LB) <b>\$8.99</b>	<b>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b> 해오름 소면 5 LB <b>\$4.99</b>	<b>GOMPYO Wheat Flour</b> 곰표 밀가루 CO-BRAND 밀가루 5.5 LB <b>\$3.99</b>	<b>HAITAI Ace Cracker</b>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b>2\$7</b> FOR
<b>HAITAI Honey Butter Potato Chip</b> 해태 허니버터칩 1.05 OZ X 12 EA/BOX <b>\$8.99</b>	<b>HAIOREUM Aloe Vera Drink</b> 해오름 알로에 주스 ORIGINAL 50.7 FL OZ <b>\$1.99</b>	<b>Basic Apron</b> 베이직 앞치마 APRICOT/MIMOSA 29.3 X 27.7 IN <del>\$19.99</del> <b>\$14.99</b> EA	<b>BUKCAL LIFE Sink Bowl Mount</b> 벅칼 라이프 싱크볼 거치대 <del>\$5.99</del> <b>\$4.49</b> 12 ROLLS EA	<b>Red &amp; Black Melamine Plate</b> 적투톤 멜라민 접시 ROUND (5.11 IN) <del>\$1.79</del> OVAL (4.72 X 7.48 IN) <del>\$4.49</del> <b>\$1.29 \$1.99</b> EA

### 반찬단지

전통 먹거리 문화의 평가 -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9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1 Hills Blvd.  
 Quincy, MA 0226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 컴캐스트, 보스턴 일대 스몰비즈니스 100곳에 보조금 및 장비 지원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컴캐스트(Comcast)가 보스턴 대도시권(Greater Boston) 내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보조금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

컴캐스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RISE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컴캐스트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 중이다.

보스턴 지역 RISE 프로그램의 재개는 지난주 열린 보스턴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짐 루니(Jim Rooney)

회장이 발표하자마자 박수를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보스턴 지역의 사업체들은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최신 컴퓨터 및 케이블 장비 지원, 전문가가 제작한 30초 TV 광고, 온라인 창업 교육과 코칭 세션, 5,000달러의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이다.

한 기업당 받는 혜택은 총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컴캐스트는 회계법인 어니스트앤영(Ernst & Young)과 협력해 지원 기업을 심사하며, 오는 8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5개 도시권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지역 컴캐스트 수석 부사장 캐롤린 해넨은 4월 15일 보스턴 퍼블릭마켓에서 RISE 프로그램의 출범 행사를 열었다. 이곳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30개 이상의 지역 기업이 입점한 상징적인 장소다.

해넨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퍼블릭마켓에서 이 행사를 여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며 “이곳에 입점한 기업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컴캐스트 라이즈 프로그램 신청 : <https://www.comcastrise.com/bostonkorean@hotmail.com>

## 시민협회, 한인 고교 및 대학생 대상 시민참여 장학 프로그램 모집

구〈시민협회 정치인턴십 프로그램〉모집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 협회(KACL-NE, 회장 린다챔피언)가 한인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십 개발과 멘토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빅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Civic Engagement Program)'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2,000달러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과거 '시민협회 정치인턴'으로 불리던 이 프로그램은 리더십 역량 강화, 멘토십, 네트워킹 기회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주정부 기관 및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인턴십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시민협회 측은 “한인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원 마감일은 오는 2025년 4월 30일이며, 인터뷰는 선착순으로



### 〈전체 기사 읽기〉

진행된다.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KACL-NE 홈페이지(kacl-ne.org)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 문의는 application@kacl-ne.org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협회는 공식 SNS를 통해 프로그램 관련 소식과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해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실로암교회

##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https://mass.gov/YouthGambling)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eb@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김</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tkim@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김</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i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몰리 김</b> 978.454.2043 muri@bostonpremierrealty.com	 <b>니키 파크</b>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b>피터 주</b> 617.780.7833 peterju@bostonpremierrealty.com	 <b>지나 히</b> 978.866.3248 jinaheeh@bostonpremierrealty.com	 <b>여현주</b> 401.535.3387 yehyunju1@gmail.com
 <b>사라 유</b> 617.838.5787 saryu@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김</b> 617.455.7710 gracekim2003@bostonpremierrealty.com	 <b>강수진</b> 617.838.8973 kangsojin12@gmail.com	 <b>마세웅</b> 213.563.0997 ma.seung2003@bostonpremierrealty.com	 <b>미키 히</b> 413.507.1402 mikiheeh@bostonpremierrealty.com	 <b>선광환</b> 617.913.3589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b>희진 김</b> 617.877.9387 hee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영순</b> 781.800.3412 a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b>곽숙</b>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b>지현 김</b> 617.510.1182 ji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b>이곤 김</b> 617.843.8723 egonkim@bostonpremierrealty.com	 <b>혜진 김</b> 604.611.0182 heejin@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617.27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982 nancywang03@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Mian Yu</b>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ang</b> 248.418.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638.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mma</b>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a</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38.828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b>반문희 박</b> 291.448.8589 moon@bostonpremierrealty.com	 <b>재이그 김</b> 781.956.0409 reagr@bostonpremierrealty.com	 <b>이성진</b> 857.280.0434 is@bostonpremierrealty.com	 <b>Nini Bolanger</b>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 연방 판사, 비자 취소된 MIT 중국인 유학생 체포 금지 명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연방 판사는 15일, 학생 비자가 취소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이민 당국의 체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원 문서와 해당 심리의 녹음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스톤글로벌가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법원 기록상 “제인 도(Jane Doe)” 로만 표기되며, MIT 4학년에 재학 중인 22세 여성이다. 그녀는 지난 금요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장관 크리스티 노엄 그리고 연방 이민 세관대속국(ICE) 보스톤 지부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를 상대로 보스톤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측 변호인에 따르면, 국무부는 월요일 그녀의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생은 같은 날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MIT 샐리 콘블루스 총장은 같은 날 캠퍼스 커뮤니티에 보낸 서한에서, MIT와 관련된 9명의 개인이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법정 심리에서, 학생 측 변호사 스티븐 양투완은 자신의 의뢰인이 6주 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박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이 MIT를 통해 지난 4월 4일부로

F1 학생비자가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양투완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비자 소지 유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서 그녀의 신분을 종료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행위”이며,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ICE 측이 학생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비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녀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앤트와인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캄브리지 지방 법원에서 납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였고,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를 철회하며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던 당시 그녀의 F1 비자는 종료됐으며, SEVIS 기록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 내 체류는 허용됐다. 그러나 SEVIS 기록이 최근 종료되면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양투완의 설명이다.

사건을 맡은 패티 사리스 판사

## 〈전체 기사 읽기〉

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 또한 SEVIS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구글링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투완은 14일 국무부가 “즉시 출국”을 명령한 사실에 학생이 매우 불안해했으며, 체류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이민상의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 민사부 차장 레이퍼드 A. 파커는 “우리 역시 이 사건에 처음 접한 상황”이라며, SEVIS 기록 종료만으로 학생이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리스 판사는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유명한 사례에서, 학생들이 신분 종료 후 실제로 체포되고 있다”며 “정말로 체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리스 판사는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라이언스 ICE 보스톤 국장 대행 라이언스 및 그들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이민 당국 직원들에게, 학생의 다음 심리가 예정된 4월 23일 이전까지 그녀를 체포, 구금, 신분 종료, 주외 지역으로 이송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hsb@bostonkorea.com

# 유학생 비자 취소 뉴잉글랜드 지역서 최소 80건, 한인학생 2명도 포함

▶▶1면에 이어서

취소 건수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노스이스턴대는 졸업생 22명과 재학생 18명을 포함 총 40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미국 전역 10개 캠퍼스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뉴잉글랜드 내에서 정확히 몇 명이 해당되는지는 정확치 않다. 반면, 보스톤대(BU)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지만 전체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버드대, MIT, 버클리음대 등 주요 대학들도 최근 비자 취소 사례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하버드는 지난주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비자 취소 사례가 기존 5건에서 12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7명은 재학생, 5명은 졸업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MIT 역시 4월 4일 이후 재학생, 졸업생, 박사후 연구원 등 9명이 갑작스럽게 비자와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버클리음대는 당초 3건의 취소를 발표했으나,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수정했다.

텡스대도 미국내 취업 프로그램인 OPT에 참여 중인 졸업생 7명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이외에도 대학원생 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UMass 다트머스 캠퍼스는 대학원생 1명과 졸업생 4명의 비자가 4월 14일 기준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비자 취소가 빈발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소셜미디어 사용에서도 자기 검열을 먼저 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되고 있다.

MCPHS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A씨는 “친구를 통해 비자취소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있으며 SNS, 메시지 등의 사용에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브리지워터의 한인 유학생 B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 답답하다. 최대한 SNS 활동 조심하고 운전 시에는 경찰로부터 티켓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긴장된 생활의 단면을 드러냈다.

웰슬리의 한인 유학생 C씨는 “평상시 SNS도 잘 하지 않고 댓글도 남기지 않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래도 불안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모두가 한국방문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버클리에 다니고 있는 한인 유학생 D씨는 “SNS를 조심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올 여름 한국에는 다녀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MCPHS에 재학 중인 A학생도 “올 여름 예정되어 있는 한국방문은 그대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는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경우 학교에 이메일로 연락해 문제 없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늘 법 집행기관과 마주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비자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 “학교측에 연락해 SEVIS에 등록복원(reinstate)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현재 많은 이민 변호사 단체들이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미국내에서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editor@bostonkorea.com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PR. 17<sup>TH</sup> - APR. 24<sup>TH</sup>, 2025

# COCODOR



**Diffuser  
Cherry Blossom  
Edition**

**코코도르 디퓨저 벚꽃 에디션**  
 ARTIFICIAL FLOWER/ WOOD STICK  
 6.76 FL OZ ~~REG. \$15.99~~

**\$7.99**  
EA



**SUNG GYUNG  
Gopchang  
Sliced Laver**  
**곱창돌김 (조각김)**  
 0.6 OZ X 10 EA/BOX

~~REG. \$12.99~~

**\$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하버드, 트럼프 행정부 요구 거부... "대학 독립성 침해, 위헌적 요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연방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선택했다. 하버드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행정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버드의 발표는 전국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사례다. 다른 대학들도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개입에 반발했으나 하버드처럼 거부 의사를 공식 발표한 사례는 없었다. 미국내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는 그동안 장고를 거듭하면서 학생들과 교수진들로부터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하버드가 트럼프의 요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요구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대응에 초석을 깔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하버드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학생과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권 축소 ▲규정 위반 외국 유학생의 즉각적 정부 보고 ▲학과별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시 기구 도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요구했다. 이른바 '정치적 다양성'은 보수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공화 민주당을 막론하고 어느 정권도 대학이 누구를 채용하고 어떤 학문을 가르치며 누구를 입학시킬지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하버드는 대학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다양성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아 수십 개 대학을 조사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중단하면서 본격화됐다. 하버드는 현재 약 8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다년간의 연방 연구 보조금과 2억 5천 6백만 달러의 연방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 대응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원 중단을 위협했다.

행정부의 요구는 단순한 지침을 넘어 대학 자율



<전체 기사 읽기>

성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요구안에는 ▲교수 채용 전·후 표절 검사 ▲채용 전면 감사 및 데이터 공유 ▲입학 결과 전면 제공(인종, 출신국, GPA, 시험점수 포함) ▲모든 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 폐지 ▲신학대학, 교육대학, 보건대학, 의과대학 등 특정 학과 외부 감사를 통한 개편 등이 포함됐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 15개월간 반유대주의 대응과 학내 안전 강화, 사상적 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에 노력해왔으나,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학계의 환영을 받았다. 미국대학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하버드의 대응은 타 대학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부 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교수단 일부는 최근 연방자금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월요일에는 코넬, MIT, 프린스턴 등 9개 연구중심 대학과 3개 고등교육 협회가 에너지부의 4억 달러 자금 삭감 결정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하버드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었으며, 학생과 교수진은 총장의 이번 결단을 안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국토부, 하버드에 유학생 징계기록 제출요구... 불응시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 경고

하버드 불응 시 전체 하버드 6793명 유학생 본국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하버드대학교에 유학생들의 징계 및 시위 참여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전례없는 조치가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며 미국의 유학기피 및 우수두뇌의 대량 탈출 사태의 유발이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의 크리스슨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학생이 하버드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특권이지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이 입국심사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들을 본국 송환할 때 사용했던 논리다.

미국 내 대학은 유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서한은 하버드가 불복시 SEVP 인증 철회가 가능하다는 경고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측에 대해 유학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위협이 된 사례, ▲학내 학습 환경을 방해한 사례 ▲위험적 언행 또는 시위 참여로 인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

이번 조치는 세 개의 연방기관이 하버드에 유학생의 행동 수칙 위반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일주일

<전체 기사 읽기>

도 되지 않아 내려졌다. 하버드는 지난 14일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 압력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22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삭감 위기에 놓였다.

노엄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는 지도부의 무기력으로 인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했고, 이는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버드가 4월 30일까지 요청한 유학생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SEVP는 학교 인증을 자동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버드에는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 총 6,793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만약 하버드가 국토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무려 7천여명에 달하는 국제 학생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하버드는 물론 교육의 메카인 매사추세츠에 핵폭탄급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는 다른 대학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연구와 교육을 선도해왔는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학들의 국제 학생을 받아들일 권한을 제약한다면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미국 유학기피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들의 대량탈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매사추세츠, 서머타임 영구 폐지 움직임... 연방정부도 검토 중

### 대부분 일년의 두차례 시간 변경하는 것에는 대부분 반대 일광절약시간(DST) 고수 대 표준시간(Standard Time) 회귀로 대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이 매년 두 차례 시계를 바꾸는 번거로움에서 곧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의회가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을 폐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광절약시간(DST)을 선택할 것인가 표준시(Standard Time)로 되돌릴 것인가의 이견조정이 결국 서머타임 폐지의 열쇠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하루의 끝에 더 많은 햇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며 “매우 인기 있는 정책이며, 특히 시계 조정이라는 큰 불편과 정부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은 ‘선사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을철 시계를 한 시간 되돌리는 관행

#### 〈전체 기사 읽기〉

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마키 의원은 “매년 가을 시계를 되돌리며 수개월 간의 불필요한 오후 어둠과 작별을 고한다. 이 의례는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 가족과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전국주 의원협의회(NCSL)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최소 31개 주에서 총 70건에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표준시의 영구화를, 나머지는 일광절약시간제의 연중 지속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는 일광절약시간제를 유지할 경우 겨울철 아침 9시 이후에야 해가 뜨는 문제로, 표준시 영구 적용 법안을 주회에서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존 키넨 주 상원의원(민주당)이 올해 주를 일광절약시간제에서 면제시키고, 연중 아틀랜틱 표준시(Atlantic Standard Time)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광절약시간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연방 차원의 첫 시도는 플로리다의 전 상원의원이자 현재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처음 제안한 선사인 보호법이다. 이 법안은 4년 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중 표준시를 선호하며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공화당은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강한 지지층을 가진 제도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플로리다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번 뷰캐넌과 상원의원 릭 스콧은 올해 선사인 보호법을 다시 상정했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원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쟁 후 폐지됐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다시 시행되었다가 1945년 9월 종료됐다. 이후 각 주가 제각기 적용하다가 1966년 연방법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통일됐다. 다만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는 예외 규정을 통해 지금도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는다.

수년 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는 매년 두 번씩 시계를 바꾸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매사추세츠 주민들도 “결정이 어떻게든 일관되게 유지하자. 시계 바꾸는 건 이제 그만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연중 일광절약시간제를 지지하는 측은 경제적 이점을 강조한다. 해가 늦게 지면 퇴근 후에도 외출과 소비가 가능해지며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논리다. 일부는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

반면 의학계에서는 시계 변경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며 심장마비, 뇌졸중, 우울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수면학회(AASM)는 2020년 성명을 통해 “계절에 따른 시간 변경은 폐지하고 연중 고정된 표준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유타,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도 애리조나와 하와이처럼 연방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는 적도에 가까워 계절 간 일조량 차이가 거의 없고, 애리조나는 고온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다.

연방 차원에서 아무 조치가 없다면,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2일 종료된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올해는 꼭 봐야 할 미 독립전쟁 렉싱턴, 콩코드 전투 250주년 기념 행사

### 4월 18~20일, 보스턴·렉싱턴·콩코드서 퍼레이드·재현극·공연 등 열려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770년대 영국과 식민지 매사추세츠 주민들과의 불화는 점차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1775년 4월, 매사추세츠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시작된 작은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올해,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듯이 250주년 행사도 다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행사가 벌어진다. 평생에 단 한번의 기회다.

오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스턴, 렉싱턴, 콩코드에서는 수천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재현극, 퍼레이드, 공연, 전시 등이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각 지역별 주요 행사 안내이다.

#### 보스턴-폴 리버어의 "질주"

4월 18일

5:30~7:30 p.m. 폴 리버어 하우스

폴 리버어와 그의 아내 레이첼 리버어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한다.

8:00 p.m. USS 컨스티튜션 박물관, 찰스타운 해군기지

역사학자 J.L. 벨이 '폴 리버어의 여정' 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30분 강연( Building 22, Charlestown Navy Yard)

6:30 p.m. USS 컨스티튜션 박물관

행진용 나무 랜턴 제공, 리버어 환영 퍼레이드에 사용.

6:30 p.m. 보스턴 250 개막식 & 연극 "혁명의 가장자리"

폴 리버어 몰에서 열리는 역사극 공연. 미셸 우 보스턴 시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보스턴 250 공식 출범 선언

7:00 p.m. 올드 노스 처치 랜턴 예배

역사학자 헤더 콕스 리처드슨의 기조연설과 함께 열리는 랜턴 예배. 올드 노스 처치(193 Salem St., Boston)

8:00 p.m. 폴 리버어 출발

#### <전체 기사 읽기>

노스스퀘어에서 폴 리버어 출발을 볼 수 있음, 랜턴 퍼레이드와 함께 항구로 이동.

8:15 p.m. 랜턴 점등

영국군이 바다에서 상륙해 렉싱턴과 콩코드로 진격해 가는 것을 신호하는 두 개의 랜턴이 올드 노스 처치 첨탑에 점등.

8:00~8:30 p.m. 리버어 찰스강 횡단

리버어가 배를 타고 항구를 건너는 모습, 랭곤 파크(Langone Park's Harborwalk, 529-543 Commercial St.)에서 관람 가능. 관객들은 피어1에서 그를 맞이해 찰스타운 시티스퀘어까지 따라갈 수 있음

8:30~9:00 p.m. 리버어 찰스타운 도착

찰스타운 시티 스퀘어에서 존 라킨 집사와 찰스타운 민병대 환영, 시 고고학자 조 베이글리 독립전쟁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

9:10 p.m. 기마 출발

말에 오른 리버어가 "정규군이 온다!" 외치며 메인스트리트 질주.

9:30 p.m. 벙커 힐 기념탑 점등

국립공원이 탐 상단에 조명 점등. 7월 4일까지 매일 저녁 계속된다.

#### 렉싱턴-전투 재현과 군악대 공연

4월 19일

5:15 a.m. 렉싱턴 전투 재현극

렉싱턴 배틀그린(1625 Massachusetts Ave.)에서 열리는 실제 전투 장면 재현. 이른 도착 권장.

8:00 a.m. 패트리어츠데이 5마일 로드레이스

렉싱턴 센터에서 출발. 자세한 코스는 라이온스클럽 홈페이지 참조.

9:00 a.m. USS 렉싱턴 기념식

렉싱턴 비지터센터(1875 Massachusetts Ave.) 인근에서 USS 렉싱턴이라 명명된 5척의 역사속 해군 함정들과 1775년 민병대 기념.

10:00 a.m. 기념 수목 식수



렉싱턴 타운 웹사이트 캡처

아메리카혁명의 딸들 렉싱턴지회 주관, 버크맨테번(Buckman Tavern, 1 Bedford St) 뒷뜰에서 나무 헌정.

11:00 a.m. 배틀그린 재현정식 & 군 시범

주 및 연방 주요 관계자들의 연설, 미 육군 250부대(Army250) 참여. 골든나이츠낙하산팀의 스카이다이빙, 군악대, 드릴팀 퍼포먼스 등이 이어져.

2:00 p.m. 패트리어츠데이 퍼레이드

메이플 스트리트~위든 로드까지 2.5마일 행진, 총 125개 단체에서 2,700명 이상 참가.

7:00 p.m. 콘서트

캐리 홀(Cary Hall, 1605 Massachusetts Ave.)에서 비센테니얼 밴드 콘서트. 무료 입장.

#### 콩코드-세계사에 남은 총성 기리는 날

4월 19일

6:00 a.m. 노스 브리지 새벽 예포

퍼스트패리시 교회 종소리(5:45)와 함께 재연 민병대가 버트리스 언덕에 소집하며 새벽 행사 시작. 드, 새뮤얼 프레스콧을 연기하는 배우가 등장, 레드코트(영국군)의 진군 경고, 올드 맨스(Old Manse) 필드에서 소총과 대포 발

사로 마무리.

8:30 a.m. 패트리어츠데이 퍼레이드

소로우 거리에서 출발해 노스 브리지 경유. 미국 전역 콩코드 지자체 대표단, 모라 힐리 주지사, 4성 장관 2명, 영국 영사 등 참석.

9:30 a.m. 노스 브리지 헌화식

미국·영국 병사 묘비에 각각 화환 헌화. 국가 제창, 대포 예포, 기념 연설.

2:00~7:30 p.m. 블록파티 및 맥주가든

모뉴먼트스퀘어와 라이트 타번에서 열리는 거리 축제. 음식트럭, 공연 다채.

7:30 p.m. 드론 라이트쇼 "패트리어츠라이트"

음악과 함께 드론쇼가 하이라이트. 일몰 후 8:15경 시작.

#### 교통 안내

대규모 행사로 행사장 인근의 많은 도로에서 차량이 통제되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위성 주차장 및 셔틀: 렉싱턴·콩코드 양쪽에서 운영. 세부 사항은 각 타운홈페이지(Lex250, Concord250)에서 확인 가능.

hsb@bostonkorea.com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최인엽  
청년부 전도사: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 골다공증에 대한 조기 검진과 신속한 진단의 중요성

이 칼럼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과 신속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주민(AANHPI,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and Pacific Islander) 커뮤니티의 고령층 여성들을 위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Q1〉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높이는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5,400만 명의 성인이 골다공증 상태에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골절,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여성 2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골절을 경험하며,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3명 중 2명은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계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골밀도가 낮고, 식습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아시아인은 많은 경우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칼슘의 주요 공급원인 유제품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해지고, 뼈가 더욱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시아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골다공증 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골다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질환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 골다공증의 첫 번째 징후이기 때문에 종종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많은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있어서 골절이란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경험한 사람 중 60%는 독립적인 생활을 완전하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골절 후에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 위험이 높아지며, 재활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

성 통증과 이동에 제한이 생겨서 사회적 고립, 우울증, 그리고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뼈 골절(고관절 골절)을 겪은 사람의 1년 이내 사망률은 32%. 척추 골절을 경험한 사람의 1년 이내 사망률은 10%에 달합니다.

NAPCA는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주민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령층, 특히 여성들은 골다공증 검진과 치료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뼈 손실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AANHPI 고령 여성들은 뼈 건강, 검진, 치료 옵션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골다공증은 매우 심각한 질환이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주민(AANHPI)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간과됩니다. 65세 이상의 여성들은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는 20%에 불과합니다. 미국 국립 건강 및 영양 조사(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단 7%만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AANHPI 고령층, 특히 여성들은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의 뼈 손실을 막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 일원에게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뼈 건강, 검진, 치료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미 아태 노인센터(NAPCA)는 APIAHF(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미국인 건강 포럼)과 CVEEP(Champions for Vaccine Education, Equity, and Progress, 백신 교육, 형평성, 진보를 위한 챔피언)과 협력하여 백신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호사의 학생비자 취소사태에 대한 한탄, 과연 이게 맞나?

지난 월요일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SEVIS 취소 정책이 기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SEVIS(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학생들이 비자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다른 결격사유를 만드는 지에 대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상, SEVIS의 유지, 관리, 취소는 전적으로 각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자 (DSO) 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일 근거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DSO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EVIS 취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액면상 범죄기록이나 비자취소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취소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대부분의 SEVIS가 취소된 학생들에게 정확한 취소사유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기록도 없고 비자취소 경력도 없는 학생들의 SEVIS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은 과거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기록은 십년도 더 된 것들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범죄기록'이라고 쓰지만, 범죄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재판결과 무죄로 판명된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만 취소당한 경우입니다. 비자취소의 경우도 많은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소유하고 있던 비자를 취소하면 다른 비자를 준다는 식의 이민국 직원의 회유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요.

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 아주 심하게 의심이 듭니다. 법대시절, 백사람의 범죄자를 풀어줄지언정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미국형사법의 원칙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완벽히 정반대의 원리로 한사람의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수많은 힘없는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위낙 예상하지 못했고 선례가 없는 일이라 이민 커뮤니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론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몇일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드림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 세계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Represent the True Heart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Vote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 투표장소 Voting Place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신분증명서(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문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이에서 지나는 것은” (마 5:33-37)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3-37)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작고 큰 맹세를 많이 하며 산다. 어떤 큰 시험(학교 or 직장 등) 앞 둔 상태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이 시험만 잘 통과 되면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결과가 좋아 기쁨과 행복으로 만끽했었던건만, 어느샌가 그 약속은 뒷전이 되어버렸던 일들이 얼마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을까.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헛 맹세’ 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는 때로 마음의 없는 맹세가 아닌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아서 돕고 싶은 마음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상대에게 내 마음을 말로 전달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후회가 막심한 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 상대방인 입장에서 고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실망과 함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한 날에 웃을 땀겨 입을 것처럼 ‘말’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말’이란 그렇지 않다. ‘말’이란 생각하던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에는 무게가 있어

야 한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외모를 볼 수 밖에 없다. 명품 백에 명품 옷을 휘둘러 걸 쳐도 입의 말이 명품이 아니고 거칠고 상식 밖이라면 실망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수수하고 검소한 옷차림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생각의 말이 명품이라면 그에게는 ‘말의 무게’ 를 느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말에 대한 단순함을 말씀하고 있으며, 내 말에 덧붙이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답은 단순해진다.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조명해 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 기도로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를 위해 피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길 때만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 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엡 4:13-20)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생일선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지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생일선물이라 덤붙이며 축스러워 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법 어른스럽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아이쿠. 내입에선 탄성이 흘러나왔다. 선물봉투를 열어 볼적에 놀라웠기 때문이다. 기쁘기 보다 오히려 곤혹스럽기까지 했던 바. 선물은 잘생긴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변변히 용돈도 못주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힐난섞인 한마디가 없다면 아내가 아니다. ‘요즈음 누가 만년필을 쓰는가?’ 하지만 아내의 얼굴엔 얽은 미소와 대견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만년필보단 아이의 마음씀씀이가 가늠했던 것. 선물을 받은 아비에겐 눈초리가 부드러워 보였다.

이 나이에 무슨 사치라. 그러나 이제 한번쯤은 사치를 부려보고 싶기도 하다. 몽블랑 만년필은 내게 사치임에 틀림없지만 만년

필을 자주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인가? 요즈음엔 서명할 일도 드물테니, 장식품으로 보관해야 할지 싶다. 보고 즐기는 완상용이라는 말인즉.

이 보시게. 선물 감사하네. 잘모셔 두고 고맙게 쓰겠네. 즐만큼 쓰다가 자네에게 물려 줘세.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빌립보서 4:17)

첨添)

잇은 게 있다.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 생일을 축하하면서, 모교 동문회에서 보낸 거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감사한다.

많은 저명인사들이 몽블랑만년필을 애용한다 했다. 엘리자베스여왕도 그러했고, 케네디 미국대통령도 그중 한사람이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유명인사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 연속극 대화 한토막이다. ‘크리스마스선물은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그만.’ 크리스마스선물은 대개 꼭 필요한 건 아닐테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다. 옛날엔 장갑이나 목도리가 대세였으니 그럴법도 하다. 김치나 쌀푸대를 크리스마스선물로 주고 받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집에 와있던 아들이 물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가? 몽블랑 만년필. 내 대답인데

망서림은 없었다. 그게 얼마인가? 아들이 되물었다. 수백달러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이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얼굴빛이 어두어졌다. 아들표정을 보고 아차 싶었는데 은 말을 주워 담기에는 때가 늦었다. 철없는 아비가 된거다.

지난 생일날이다. 생일을 잊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달리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마침 아이는 집에 와있었다. 아버지생일을 챙겨 온건 아니었다. 아들은 내게 크지는 않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전신 건강의 이상이 발생 할 경우 눈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겸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눈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 ‘마음의 창’ 이라고 불리는 눈은 우리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건강의 창’ 이기도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방문하면 안과가 아닌데도 의료진이 눈에 빛을 비춰보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눈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전신 질환으로 인한 병변의 징후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의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팔다리 등의 근육은 몸을 움직일

때만 운동하지만 눈은 보는 것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많은 만큼 눈은 신체기관 중 단위 세포 면적당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가장 많이 받는다. 눈이 피로하거나 아픈 것은 몸의 다른 부위에도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가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만약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증상들이 눈에서 발견되면 건강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주의할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 중에도 우리 몸의 ‘간’ 과 ‘눈’ 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눈에 충혈이 지속되거나 흰자가 누런 빛을 띄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면서 충혈이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 이물감, 비문증,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 등이 발생한다.

또 간의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분해하는 것인데, 간에 이상이 생겨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구돌출이 발생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능성이 있다. 안구와 안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갑상선호르몬에 매우 민감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염증과 부종이 생겨 안구가 돌출 되는 것이다.

망막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 암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시신경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종양, 전안방(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면 자가면역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눈의 변화는 우리 몸의 혈관, 신경, 면역체계의 변화를 말해준다. 따라서 시력 저하 혹은 눈의 불편함이 느껴져야만 안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듯 안과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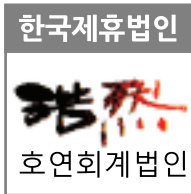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겸동주

대표원장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병의 발병 가능성과 진행 속도를 줄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Diamond Cup Annual Charity Golf Tournament






**MAY 5<sup>TH</sup>**  
MONDAY | 2025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  
Canton MA 02021


**PREGAME**

-  **CHECK-IN: 10:00 AM**
-  **PRACTICE RANGE: 10:00 AM**
-  **LUNCH BOX: 12:00 PM**

**GOLF TOURNAMENT**

-  **SHOTGUN START: 1:00 PM**
-  **18-HOLE SCRAMBLE - MALE, FEMALE, OR MIXED TEAMS**
-  **3 PAR-THREE HOLES - CLOSEST TO THE PIN WINS A DIAMOND!**

**POSTGAME & CELEBRATION**

-  **DINNER: 6:00 PM**
-  **AWARDS CEREMONY: 7:00 PM**
-  **DJ AFTER-PARTY: 7:30 PM**

**\$200**

One Player

**---PRIZES---**

 **CLOSEST TO THE PIN PRIZES:**

- TWO-CARAT DIAMONDS (CVD)**
- 2 FOR THE MEN'S CLOSEST TO THE PIN**
- 1 FOR THE WOMEN'S CLOSEST TO THE PIN**
- TOP TEAMS:**
-  **1ST PLACE: \$1,000**
-  **2ND PLACE: \$800**
-  **3RD PLACE: \$600**

**RAFFLES & AUCTION  
LUNCH & DINNER INCLUDED**



**CONTACT US**  
**(860) 304-3530**

**Register Here**

**<https://bit.ly/4i3nQX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6) 투자 사기(Scam)

판사: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던 말이지요?

피고: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 ???

메이도프 투자사기 (Madoff-style schemes)는 월가(Wall Street)에서 일어난 사건 규모 중 최대의 사기였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무려 \$50 billion이었다. \$50 billion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다란 숫자인지 ‘감’ 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에 \$1,000을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1 billion을 전부 소비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30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3,0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여기에 곱하기 50을 또 해야 한다. 그래야 \$50 billion을 전부 소비할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쥐꼬리만 한 이자라도 붙는다고 가정하면 영원히 소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

한 것이다. 여기에는 평생 모은 은퇴자금도 물론 포함한다.

떠나온 고국에서도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투자사기에 투자자가 속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투자 폰지(Ponzi)사기가 다그려듯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일부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은다.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소위 ‘똑 부러지게 똑똑한 사람’ 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노년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투자한 일반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투자사기를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유혹적인 단어는 ‘보장(Guarantee)’ 이다. 투자가 무엇인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면 일단 조심해야 한

다. 숨어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라고 언급했다. 2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투자하는데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소중한 자금을 투자한 재정 문서가 어디에서 발행되는가?이다. 메이도프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재정 문서를 메이도프 회사에서 직접 발행했다.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 어디에 투자했다고 거짓으로 재정 문서를 만들었다.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 문서가 제삼자인 다른 곳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투자한 돈이 예를 들어 Vanguard나 Fidelity에 직접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재정 문서가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앞으로 직접 발행된다. 그리고 투자한 돈의 움직임을 웹사이트에서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항상 알아볼 수 있다

\*이해를 못 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왜 여기에 투자하는지, 모든 투자 경비가 얼마인지 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한, 두 번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투자에서는 ‘우연’ 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도프 투자회사도 어디에 어떠한 식의 투자로 수익률을 내는지 투자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메이도프 투자자들도 그냥 “검은 상자(Black Box)” 에 투자했다고 농담하며 웃었지만, 은퇴자금이 전부 날아간 상황에서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이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장기투자하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투자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rticle (3) – FTHB – Unlocking the \$15K Forgivable Grant in Massachusetts: A Path to Homeownership

# 내 집 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10,000 클로징 비용 지원 & \$15,000 탕감 대출 프로그램

Michael Lee  
Mobile (978) 314-8818  
Email mike.lee@gmccloan.com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페이먼트(초기 계약금)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컨벤셔널 대출은 3%, FHA는 3.5%의 최소 다운페이먼트만 요구되며(지난 칼럼 참고), 상황에 따라 정부나 은행, 혹은 렌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Bond Loan Program(MassHousing) vs. CRA 프로그램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Bond Loan Program(주정부기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 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리와 모기지 보험이 적용되기에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고, DTI(부채 대비 소득 비율) 제한으로 인해 대출 한도도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렌더에서 제공하는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프로그램은 저소득-중간 소득층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DTI나 부채 부담 조건이 컨벤셔널 모기지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assHousing DPA vs. CRA Grant

MassHousing에서는 두 가지 다운페이먼트 보조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deferred loan, 상황이 유예된 2차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저금리 2차 대출입니다. 유예 대출은 채용자나 매매 시 상환해야 하며, 저금리 대출은 월 납입금에 영향을 주 결국 전체 부담이 커져 DTI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옵션 모두 결국 상환이 필요하며, 최소 다운페이먼트를 충당해주긴 하지만 \$10,000 이상이 될 수 있는 클로징 비용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CRA Grant는 진정한 의미의 ‘그랜트(무상 지원)’ 로, 조건만 충족되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CRA는 일반적인 Conventional Mortgage(일반 대출) 가이드라인을 따르므로, 소득이나 자산

조건도 MassHousing보다 유연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필자는 두 가지 그랜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0,000 클로징 비용 지원
- \$15,000 탕감형 2차 대출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에 사용 가능)

How \$10k Closing Cost Assistance and \$15K Forgivable Loan Work?

· \$10,000 클로징 비용 지원: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그랜트로, 클로징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는 포인트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15,000 탕감 대출: 3년 내 주택을 매도하거나 채용자하지 않으면 상환이 필요 없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탕감되어 3년 후엔 전액 탕감됩니다.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Essex, Middlesex, Norfolk, Suffolk 카운티 내 일부 도시 및 타운에서 제공되며, 소득 기준은 중간 가구 소득(MFI)의 150% 또는 200%까지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니라도, 매입 목적이 실거주이고 클로징 시점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그 외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hy This Program Is a Game Changer

- 추가 월 납입 부담 없음
-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 모두에 사용 가능, 100% 자금 조달 가능
- 높은 진입 장벽 해소
- 100% 용자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실질적인 무자본 주택 구매도 가능

The Takeaway: Don't Let Misconceptions Hold You Back

집값 상승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집 마련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0 그랜트나 \$15,000 탕감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 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자격과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5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May 2, 2025 (Friday) 6 PM

Michael's Function Hall

12 Alpha St, Haverhill, MA 0183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Letterly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례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a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